

2000년 동물약품 현황과 향후 전망

신형철 기획조사부장
한국동물약품협회

1. 2000년 동물약품과 축산업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시작했던 밀레니엄 첫해인 2000년도는 예기치 않았던 악재들로 그 시작부터 축산업과 동물약품업계에 시련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었던 것 같다.

돼지고기 일본 수출유지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돼지콜레라 방역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건만, 예상은 했지만 실제 상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양돈농가는 물론 전 축산업 종사자와 관련산업 조기 박멸을 위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동물약품업계 역시 발표 당일부터 소독약 수급 상황실을 개설하고, 구제역 바이러스에 소용되는 소독제 수급에 전전긍긍하였다.

제조업체는 기타 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소독제 수급 곤란으로 인한 방역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소독약 제조에 몰두했으나, 방역 관련 산업권으로서 마진보다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소독제를 공급하는 동물약품업체들에게 일부 호사가들이 동물약품 업계가 소독

제 때문에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보다 원활한 소독약 공급을 위하여 회원사에서 무료로 지원한 소독약을 트럭에 싣고 구제역 발생지역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며 보람도 느꼈던 한해로 기억 될 것 같다. 모쪼록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조속히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되고, 총력을 다했던 돼지콜레라도 박멸되어 양돈농가와 축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길 기대해 본다.

2. 2000년 동물약품 현황

축산업이 기로에 섰던 만큼 동물약품 업계 또한 소독제를 제외한 모든 약품 분야에서 전년에 비하여 저조한 매출현황을 보였으며, 매출 감소로 인한 가격경쟁의 심화로 마진 또한 전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앞으로 남고 두로 밀지는 실리 없는 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 원료 및 완제품 수입현황

국내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의 경우 99년에 비하여 -10%가 감소하였고 소독제 원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약 원료들의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년에도 업체별로는 과학사료, 다원케미칼, 동방, 바이엘코리아, 우성양행, 우진, 유니화학,

〈표1〉 원료 수입현황

(단위 : 천불)

구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수입액	106,064	80,518	98,805	88,608
전년 대비(%)	-	-24	+23	-10

〈표2〉 제제별 수입현황

(단위 : 천불)

구분	비타민제	아미노산	소독제	항생제	항균제
1999년	35,258	17,869	644	26,097	6,815
2000년	26,705	15,531	2,461	23,847	6,478
증감율(%)	-24	-13	+282	-9	-5

〈표3〉 완제품 수입현황

(단위 : 천불)

구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수입액	29,121	24,684	39,756	46,646
전년 대비(%)	-	-15	+61	+17

보이고 있지만, 특징 있는 제품과 차별화된 영업 정책을 구사하는 다국적기업을 제외한 매출 위주의 내국기업의 경우 매출은 다소 증가되었지만 배합사료에 공급되는 영양 사료첨가제가 거의 노-마진이나 옵션 마진의 형태로 공급되어지고 있어 매출 이익 부분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영양 사료첨가제 업체의 이러한 저마진 영업정책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으로서 영업

제일바이오, 중앙바이오텍, 태경(가나다 순) 비타민 등의 영양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역시 원료 수입 규모면에서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입 완제품의 수입은 제품이 주로 양축농가에 판매되는 백신 수입의 증가와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하여 99년에 이어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국적기업으로는 메리알코리아, 인터베트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등이 백신을 위주로 한 소동물용 약물 수입이 두드러졌고 내국 기업으로는 제일제당(라이신), 씨티씨바이오, 삼지약품, 동방, 성일파마 등이 수입을 주도하였다.

이익 창출을 위하여 양축농가에 판매되는 전문 치료제 시장의 집중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물약품 업체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로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과학사료, 다원케미칼, 대성미생물연구소, 바이엘코리아,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엘지화학, 우성양행, 유니화학, 제일바이오, 중앙바이오텍(가나다 순) 등이며, 수입 완제품 수입업체로는 대호, 메리알코리아, 버박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 삼지약품, 신한축산, 씨티씨바이오, 인터베트코리아, 제일제당, 한국화이자동물약품(가나다 순) 등이 상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나. 동물약품 판매 현황

〈표4〉 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 억, 9월말 기준)

매출면에서 전체적으로 9월 말까지 약 5.1%의 성장율을

구분	1999년	2000년	전년대비 증감율(%)
국내 생산	2,284	2,373	+ 3.9
수입 완제	560	616	+ 10
계	2,844	2,989	+ 5.1

〈표5〉 제제별 전년대비 신장율

(단위 : %)

구분	대사성약품	항생·항균제	의약품(소독제)	생물학적제제
국내 생산	+ 1	+ 0.6	+ 137	+ 11.1
수입 원재	+ 5.2	+ 2.1	+ 89	+ 35.1

구입하지 않고 농협이 해외로부터 수입으로 대체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역 소독제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한 필드용 약품으로 판매되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6〉 전년대비 가격 동향

(단위 : %)

구분	대사성약품	항병원성약	합성항균제	항생제	소독제	생물학적제제
1999년	- 6	- 9.8	- 13.9	- 9.4	- 8.7	+ 7.1
2000년	- 6	- 9.5	- 12.7	- 9.5	- 4.5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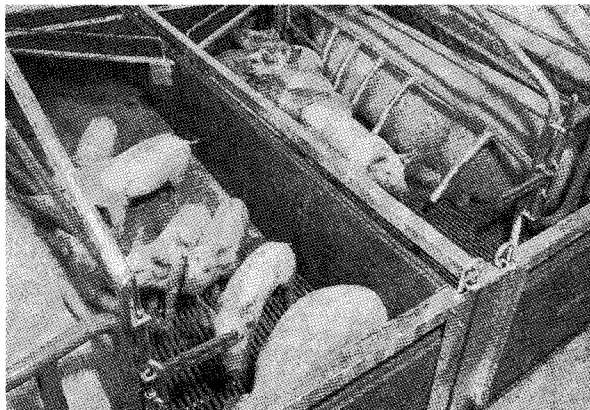
다. 동물약품 가격 현황

제제별로는 방역에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소독제와 생물학적제제의 경우만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사성약품이나 항생·항균제 등 전년도 수준이며 기타의 약품들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저조한 매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판매처별로는 사료공장에 판매되는 약품들은 -34%로 감소되었으며,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11.7%가 증가 되었는데 사료공장에서의 매출감소의 원인으로서는 농협에 납품되는 주문용배합사료첨가제가 제조업체를 통하여

동물약품의 가격은 유사제품과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하여 영양 사료첨가제는 거의 노마진 선까지 인하 되었으며, 전문 치료제인 경우도 마진율이 최소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의 인하는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과당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경쟁은 일견 양축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수제조기준(GMP)”을 적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리한 가격경쟁이 품질저하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양축농가들도 가격이 싼 약품만 찾지 말고, 제품의 품질과 효능·효과를 감안하여 약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구매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경제적 손실과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임을 이제는 조금씩 자각하고 생산자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양축농가 지도와 홍보에 주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무료로 지원한 소독약을 트럭에 싣고 구제역 발생지역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며 보람도 느꼈던 한해로 기억된다.



3. 동물약품 산업의 2000년과 2001년

동물약품 업계의 2000년은 참으로 어려운

양축농가들도 가격이 싼 약품만 찾지 말고, 제품의 품질과

효능·효과를 감안하여 약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구매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경제적 손실과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임을 이제는 조금씩 자각하고 생산자 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양축농가 지도와 홍보에 주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의 밀레니엄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고, 현 정부 입각과 동시에 논란이 되었던 농림부의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의 불법적 개정으로 말미암아 비타민·미량광물질·생균·효소제가 사료로 분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집단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면서도 사료로 인한 양축농가의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으며, 국민의 식량안보의 중요한 분야를 담보하는 “사료관리법”이 단미·보조사료 업체나 배합사료 업체를 위한 법률이 되어서는 안되며, 축산의 주체인 양축농가를 위한 법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 추진중인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마저도 비타민 등의 의약품을 사료첨가제나 사료첨가물이 아닌 사료의 원료인 “보조사료”로 분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타민 등을 “사료”로 정의한 나라는 없으며, 사료첨가제나 사료첨가제로 분류하여 이로 인한 인체에서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양축농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사료 및 생산자 단체들의 관심과 고언이 아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2000년의 동물약품 산업은 구제역과 이로 인한 수요감소,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마진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1년에도 축산물 수입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난매, 국가 경제의 위축이 동물약품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을 위하여 박차를 가해 온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맺



◀2001년에도 축산물 수입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난매, 국가 경제의 위축이 동물약품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음과 구제역 등과 같은 악성 전염병의 차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금년 정도의 매출 유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찌됐던 축산업은 우리 모든 축산인들이 선도적으로 지켜내야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책무가 있는 만큼 농림부 그리고 축산인 모두 우리의 축산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이겨 나아가야 할 때라 여겨진다. **양동**